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06호 [루계 제25084호] 주제 104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기세로 당 제7차대회를 전례 없는 로력적 성과로 뜻깊게 맞이하자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기쁨이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고 있는 때에 김책체칠련합기업소에서 좋은 소식이 편이어 전해지고 있다.

김철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첨단과학기술을 요구하는 10여개 대상들의 현대화, CNC화를 실현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하였다.

얼간압연공정을 비롯한 주요 생산공정들의 현대화, CNC화가 실현됨으로써 금속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질좋은 일련강재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책체칠련합기업소에서 전기자동화계통의 CNC화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준엄한 난대마다 강철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해온 김철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업무를 헌신했던 학생들에게는 정보 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내밀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해 현대화 기업소에서 국가과학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나라의 강력한 기술력을 끌어들여 현대화 기업으로 헌신하였다.

현대화 기업으로 헌신하는 주요 생산공정들의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쳤다. 그 과정에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상사식환기를 풀어주시였다.

주제적야금공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자랑찬 성과

김책체칠련합기업소에서 열간압연공정을 비롯한 10여개 대상의 현대화, CNC화 완성

이 수자식변환기로 전환되고 완성압연기의 유압화를 실현하였으며 종합생산공정감시 및 지령체계를 확립하여 열간압연제품의 생산성과 질을 보다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김철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첨단과학기술을 요구하는 10여개 대상들의 현대화, CNC화를 실현한 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철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흔을 확고한 한계의 드리도 없이 판찰하도록 현대화, CNC화 정형을 구체적으로

로 헤아리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한경복 등 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흔을 확고한 한계의 드리도 없이 판찰하도록 현대화, CNC화를 실현한 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철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흔을 확고한 한계의 드리도 없이 판찰하도록 현대화, CNC화를 실현한 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철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흔을 확고한 한계의 드리도 없이 판찰하도록 현대화, CNC화를 실현한 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철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흔을 확고한 한계의 드리도 없이 판찰하도록 현대화, CNC화를 실현한 것은 전적으로

풀어주게 하였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면합기

업소에서는 실력있고 경험있는

당, 행정, 기술일군들, 기술자들은

CNC화지휘부와 각 대상별현

장지휘부를 조직하고 수백차례

을 굳게 믿으시고 주신 파업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결의를

각오를 가지고 생산공정들의 현

대화, CNC화실현에 달라붙었

다. 국가과학원과 김책공업종합

대학, 리파대학, 청진공장금속대학,

청진공업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현대화 기업으로 달려나와 김철의

로동계급을 적극 도와나갔다.

현대화 기업으로는 편집기

기, 기술자들은 청진기계, CNC화

를 앞당겨 끌어내기 위한 만

계별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모든

단위들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충

동원하며 대중의 집체적 협력

을 펼쳐 관철해야 한다는

결의를 세우고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대처방법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조선혁명은 위대한 사상과 투출한 신념으로 충만된 위업이다.

로동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은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높은 붉은 당기를 둑으로 삼아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리는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은 백두산의 해동이와 같은 붉고 강렬한 혁명신념으로 가득차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신념으로 걷는 길이 혁명의 길이고 죽어도 뛰뛸수 없는것이 혁명가의 신념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나 원자탄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은 배승의 영웅사사시를 수놓아온 조선혁명의 역사적 충돌이며 대명제이다. 조선으로 당창건 70돐을 혁명적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승리의 명마로에서 부활다단한 세계를 끌어모여 조선의 혁명가들은 사상과 신념으로 해체온 혁명의 길이 얼마나 궁지높고 영광스러운 길인가를 천만번 점검하고 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이 구호에 균 한세기에 걸쳐 조선혁명을 억세게 관통해온 진리가 응축되어 있고 영원한 승리의 비결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청신한 공기처럼 온님을 깔아모여 조선의 혁명가들은 사상과 신념으로 해체온 혁명의 길이 얼마나 궁지높고 영광스러운 길인가를 천만번 점검하고 있다.

죽어도 혁명신념을 편안히 간의 창다운 삶과 행복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인생의 훌륭소이다.

신념이 혁명투쟁에서 생명으로 된다면 인생에 있어서도 생명과 같다. 신념이 강한 인간일수록 삶의 지향과 목표가 뚜렷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무한히 크고 강렬하다. 사회와 집단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이비지하려는 신념이 강한 인간을 사랑한다.

준엄한 혁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별의별 일이 다 있을수 있다. 절해고도에 홀로 남을수도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압력을 받을수도 있으며 지팡은 유혹에 시달릴 때도 있고 지어 가슴아픈 회생을 당할 때도 있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만이 그 어떤 인생풍파에서도 혁명가의 존엄과 본분을 끌어내고 고수할수 있다.

혁명에 다진 맥에 번치 말자는 언약을 지켜 최후의 순간에 한결 막세를 높이 워치고 수령의 안녕을 위하여 스스로 헌신하며 신념이 훈련되며 혁명이 침로를 잊고 좌절과 실패를 면치 못한다. 신념의 강도에 혁명의 위력과 불세성이 정비례한다는 것은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신념이 강한 당은 번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주체혁명의 대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1

신념으로 걷는 길이 혁명의 길이다. 신념이 강장면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신념이 훈련되며 혁명이 침로를 잊고 좌절과 실패를 면치 못한다. 신념의 강도에 혁명의 위력과 불세성이 정비례한다는 것은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신념이 강한 당은 번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주체혁명의 대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혁명신념은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가게 하는 사상정신적기둥이다.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간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세기적원원과 려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기업의 승리는 훗날까지도 이 길에는 넘기 힘든 힘한 데도 있고 해쳐나가기 어려운 전필길도 있으며 사나운 풍랑길도 있다. 역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끊고 최후승리의 그늘까지 출구처럼 쐬워나가게 하는 힘은 혁명신념에 있다.

혁명신념은 참다운 혁명의 길로 꾼바로 나아가게 한다. 정의의 길, 진정한 혁명의 길은 한길이지만 유혹의 길, 도피의 길은 천갈래, 만갈래이다. 신념이 부족한데서 혁명가의 고열과 철조를 체화하는 것은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신념이 강한 당은 번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주체혁명의 대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혁명신념은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가게 하는 사상정신적기둥이다.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간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세기적원원과 려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기업의 승리는 훗날까지도 이 길에는 넘기 힘든 힘한 데도 있고 해쳐나가기 어려운 전필길도 있으며 사나운 풍랑길도 있다. 역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끊고 최후승리의 그늘까지 출구처럼 쐬워나가게 하는 힘은 혁명신념에 있다.

혁명신념은 참다운 혁명의 길로 꾼바로 나아가게 한다. 정의의 길, 진정한 혁명의 길은 한길이지만 유혹의 길, 도피의 길은 천갈래, 만갈래이다. 신념이 부족한데서 혁명가의 고열과 철조를 체화하는 것은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신념이 강한 당은 번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주체혁명의 대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혁명신념은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가게 하는 사상정신적기둥이다.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간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세기적원원과 려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기업의 승리는 훗날까지도 이 길에는 넘기 힘든 힘한 데도 있고 해쳐나가기 어려운 전필길도 있으며 사나운 풍랑길도 있다. 역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끊고 최후승리의 그늘까지 출구처럼 쐬워나가게 하는 힘은 혁명신념에 있다.

혁명신념은 참다운 혁명의 길로 꾼바로 나아가게 한다. 정의의 길, 진정한 혁명의 길은 한길이지만 유혹의 길, 도피의 길은 천갈래, 만갈래이다. 신념이 부족한데서 혁명가의 고열과 철조를 체화하는 것은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신념이 강한 당은 번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주체혁명의 대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혁명신념은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가게 하는 사상정신적기둥이다.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간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세기적원원과 려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기업의 승리는 훗날까지도 이 길에는 넘기 힘든 힘한 데도 있고 해쳐나가기 어려운 전필길도 있으며 사나운 풍랑길도 있다. 역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끊고 최후승리의 그늘까지 출구처럼 쐬워나가게 하는 힘은 혁명신념에 있다.

혁명신념은 참다운 혁명의 길로 꾼바로 나아가게 한다. 정의의 길, 진정한 혁명의 길은 한길이지만 유혹의 길, 도피의 길은 천갈래, 만갈래이다. 신념이 부족한데서 혁명가의 고열과 철조를 체화하는 것은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신념이 강한 당은 번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주체혁명의 대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혁명신념은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가게 하는 사상정신적기둥이다.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간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세기적원원과 려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기업의 승리는 훗날까지도 이 길에는 넘기 힘든 힘한 데도 있고 해쳐나가기 어려운 전필길도 있으며 사나운 풍랑길도 있다. 역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끊고 최후승리의 그늘까지 출구처럼 쐬워나가게 하는 힘은 혁명신념에 있다.

혁명신념은 참다운 혁명의 길로 꾼바로 나아가게 한다. 정의의 길, 진정한 혁명의 길은 한길이지만 유혹의 길, 도피의 길은 천갈래, 만갈래이다. 신념이 부족한데서 혁명가의 고열과 철조를 체화하는 것은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신념이 강한 당은 번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주체혁명의 대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혁명신념은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가게 하는 사상정신적기둥이다.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간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세기적원원과 려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기업의 승리는 훗날까지도 이 길에는 넘기 힘든 힘한 데도 있고 해쳐나가기 어려운 전필길도 있으며 사나운 풍랑길도 있다. 역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끊고 최후승리의 그늘까지 출구처럼 쐬워나가게 하는 힘은 혁명신념에 있다.

혁명신념은 참다운 혁명의 길로 꾼바로 나아가게 한다. 정의의 길, 진정한 혁명의 길은 한길이지만 유혹의 길, 도피의 길은 천갈래, 만갈래이다. 신념이 부족한데서 혁명가의 고열과 철조를 체화하는 것은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신념이 강한 당은 번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주체혁명의 대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혁명신념은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가게 하는 사상정신적기둥이다.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간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세기적원원과 려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기업의 승리는 훗날까지도 이 길에는 넘기 힘든 힘한 데도 있고 해쳐나가기 어려운 전필길도 있으며 사나운 풍랑길도 있다. 역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끊고 최후승리의 그늘까지 출구처럼 쐬워나가게 하는 힘은 혁명신념에 있다.

혁명신념은 참다운 혁명의 길로 꾼바로 나아가게 한다. 정의의 길, 진정한 혁명의 길은 한길이지만 유혹의 길, 도피의 길은 천갈래, 만갈래이다. 신념이 부족한데서 혁명가의 고열과 철조를 체화하는 것은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신념이 강한 당은 번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주체혁명의 대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혁명신념은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가게 하는 사상정신적기둥이다.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간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세기적원원과 려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기업의 승리는 훗날까지도 이 길에는 넘기 힘든 힘한 데도 있고 해쳐나가기 어려운 전필길도 있으며 사나운 풍랑길도 있다. 역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끊고 최후승리의 그늘까지 출구처럼 쐬워나가게 하는 힘은 혁명신념에 있다.

혁명신념은 참다운 혁명의 길로 꾼바로 나아가게 한다. 정의의 길, 진정한 혁명의 길은 한길이지만 유혹의 길, 도피의 길은 천갈래, 만갈래이다. 신념이 부족한데서 혁명가의 고열과 철조를 체화하는 것은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신념이 강한 당은 번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주체혁명의 대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혁명신념은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가게 하는 사상정신적기둥이다.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간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세기적원원과 려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기업의 승리는 훗날까지도 이 길에는 넘기 힘든 힘한 데도 있고 해쳐나가기 어려운 전필길도 있으며 사나운 풍랑길도 있다. 역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끊고 최후승리의 그늘까지 출구처럼 쐬워나가게 하는 힘은 혁명신념에 있다.

혁명신념은 참다운 혁명의 길로 꾼바로 나아가게 한다. 정의의 길, 진정한 혁명의 길은 한길이지만 유혹의 길, 도피의 길은 천갈래, 만갈래이다. 신념이 부족한데서 혁명가의 고열과 철조를 체화하는 것은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신념이 강한 당은 번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주체혁명의 대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혁명신념은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가게 하는 사상정신적기둥이다.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간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세기적원원과 려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기업의 승리는 훗날까지도 이 길에는 넘기 힘든 힘한 데도 있고 해쳐나가기 어려운 전필길도 있으며 사나운 풍랑길도 있다. 역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끊고 최후승리의 그늘까지 출구처럼 쐬워나가게 하는 힘은 혁명신념에 있다.

혁명신념은 참다운 혁명의 길로 꾼바로 나아가게 한다. 정의의 길, 진정한 혁명의 길은 한길이지만 유혹의 길, 도피의 길은 천갈래, 만갈래이다. 신념이 부족한데서 혁명가의 고열과 철조를 체화하는 것은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신념이 강한 당은 번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주체혁명의 대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혁명신념은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가게 하는 사상정신적기둥이다.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간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세기적원원과 려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기업의 승리는 훗날까지도 이 길에는 넘기 힘든 힘한 데도 있고 해쳐나가기 어려운 전필길도 있으며 사나운 풍랑길도 있다. 역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끊고 최후승리의 그늘까지 출구처럼 쐬워나가게 하는 힘은 혁명신념에 있다.

혁명신념은 참다운 혁명의 길로 꾼바로 나아가게 한다. 정의의 길, 진정한 혁명의 길은 한길이지만 유혹의 길, 도피의 길은 천갈래, 만갈래이다. 신념이 부족한데서 혁명가의 고열과 철조를 체화하는 것은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신념이 강한 당은 번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주체혁명의 대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혁명신념은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가게 하는 사상정신적기둥이다.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간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세기적원원과 려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기업의 승리는 훗날까지도 이 길에는 넘기 힘든 힘한 데도 있고 해쳐나가기 어려운 전필길도 있으며 사나운 풍랑길도 있다. 역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끊고 최후승리의 그늘까지 출구처럼 쐬워나가게 하는 힘은 혁명신념에 있다.

혁명신념은 참다운 혁명의 길로 꾼바로 나아가게 한다. 정의의 길, 진정한 혁명의 길은 한길이지만 유혹의 길, 도피의 길은 천갈래, 만갈래이다. 신념이 부족한데서 혁명가의 고열과 철조를 체화하는 것은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신념이 강한 당은 번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주체혁명의 대업을 기어이 완수할것이다.

혁명신념은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가게 하는 사상정신적기둥이다.

혁명의 길을 꿈까지 간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세기적원원과 려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기업의 승리는 훗날까지도 이 길에는 넘기 힘든 힘한 데도 있고 해쳐나가기 어려운 전필길도 있으며 사나운 풍랑길도 있다. 역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끊고 최후승리의 그늘까지 출구처럼 쐬워나가게 하는 힘은 혁명신념에 있다.

혁명신념은 참다운 혁명의 길로 꾼바로 나아가게 한다. 정의의 길, 진정한 혁명의 길은 한길이지만 유혹의 길, 도피

우리 당건설과 혁명발전에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대경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한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펼치며 백승의 역사만을 이어나갈것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함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한 천민군민의 심상나마다에서 크나큰 경영과 환희, 충정의 맛새가 날아 갑수록 더욱 뜨겁게 퍼출되고 있다.

천지를 진감시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후 우리 군대와 인민은 70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로선과 원칙을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끌어위고 혁명과 건설을 앞당겨나갈 불리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실현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한 당의 불멸의 업적을 드높게 되새기고 있다.

또한 세기를 이어 계속된 제국주의의 대결 전에서 승리의 전통을 새기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위를 영예에 수호하고 이 망우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한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신념을 더더욱 굽히고 있다.

각지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봉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끌어위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 일대 앙장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봉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희상을

온 세상에 빛내이시였다.

그 날 우리 혁명의 세들만이 아닌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자주와 신념으로 수호하고 빛내이신 백두의 붉은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진리가 고신당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성스러운 붉은기는 오늘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세기의 하늘과 그토록 침착하게 휘날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의 위업, 백두의 대업을 이룩하려면 위대한 봉도의 자속을 새기기는 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배 두산은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배 두산이자 김정은의 백두산이라는 참으로 크나큰 뜻이 담긴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휘날리신 우리 당의 붉은기, 백두의 스러운 붉은기를 영원히 휘날리며 가시는 절의 신념과의지가 떠올랐다.

붉은기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봉도를 높이 모시여 백두의 붉은기, 우리 당의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휘날리며 가시는 절의 신념과의지가 떠올랐다.

한평생 휘날리신 우리 당의

인민종족,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가는 우리 당이 세일이며 당의 봉도 따라 나아갈 때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진리가 고신당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해방전 전고산, 풍고산으로 불리우며 사람 못살 곳으로 이름났던 고장을 인민의 학원으로

꾸려주시기 위해 파수농장을 창설하시고 굴지의 청춘파원으로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농장은 인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돌격대원들과 헌신해온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파분한 평가를 해주시였다.

우리는 그 사람, 그 일을 뜨겁게 간직하고 인민을 위한 멀

록을 펼쳐나가겠다. 당의 뜻

격려원들은 수령의 유훈판침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 높이 수천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고 파일나무들을 심어 파수의 바다를 펼쳐놓았다. 또한 세멘트, 기와,

환경생산기지를 비롯한 자력갱

생기지를 일떠세우고 여기에

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고산파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철령아미에 사회주의선정, 인민의 리상황이 활짝 꽂혀나고 있다

고 몸내기 끼여하시며 6·18건설을 펼쳐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농

장은 인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파분한 평가를 해주시였다.

우리는 그 사람, 그 일을 뜨겁게 간직하고 인민을 위한 멀

록을 펼쳐나가겠다. 당의 뜻

격려원들은 수령의 유훈판침전,

주체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

농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이미 건설한 농장림들을 더 잘 꾸려 기 위한 전투를 비롯하여 내세운 전투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겠다.

우리들은 조선사람이라면 누

구나 안고 살아야 할 배수산을 언제나 우러르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카비팅정신을 빼

와 살을 쪼이학교 영웅청년신화

창조자들의 투쟁기풍으로 파일보광고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

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겠다.

그런 자랑찬 성과를 이루

하며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우리들은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파분한 평가를 해주시였다.

우리는 그 사람, 그 일을 뜨겁게

간직하고 인민을 위한 멀

록을 펼쳐나가겠다. 당의 뜻

격려원들은 수령의 유훈판침전,

당지부장으로 혁명적대경사

도 물질형농법을 비롯한 관

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 농사를 짓길 있게 지을 수 있다. 또한 농업근로자들 모두가 선진영농기술을 배우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미리되어 공부할수 있는 농업과학기술보급실도 흥

물히 일찌세 우게 되었다.

이처럼 실천을 통하여 위대한 당의 봉도를 따르는 길에 농장의 더 좋은 배일이 앞당겨지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뼈에 새긴 우리들이다.

갈수록 더해지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나리의 삶을 책임진 주인구실을 하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

지금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장포전을 당중앙위원회 대표들과 함께 이어주고 향상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것을

은 결의에 넘치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찰할 때 우리에게는 절명 못할 요새가 없으며 한드레벌에서 세세년년 풍작을 이룩할 수 있다. 우리 일군들로부터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품과 정을 심장에 기득 채우고 생님길, 청창길을 앞장에서 해치면서 말려진 알파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의 기운, 전위투사가 되어 위대한 장군님 펼쳐주신 한드레벌의 새 역사를 대대손순 빛내어나가겠다.

대한군은 은행동농장 관리위원장 허정옥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힘차게 나붓기는 백두의 붉은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한 천출위인 소식에 접한 후 우리 군대와 인민은 70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로선과 원칙을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끌어위고 혁명과 건설을 앞당겨나갈 불리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각지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봉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끌어위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앙장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리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전승업적선전을 더욱 기동적으로

내 나이 비록 80이 지났지만

가슴은 지금도 커다란 홍분으로

하여 뛰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과

한국의 혁명시기에서

여기로도

우리 당의

역사적인 전략으로

백두산청년대군이 있어 선군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조국이여, 우리에게 큰 짐을 맡겨 달라

우리 청년들을 내 나라, 내 조국의 이름으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아끼고 함께 나아갈 미미운 동지, 전우로 굳게 믿고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체 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땀과 열정을 다짐없이 바쳐가는 미더운 청년들의 집단이 있다. 그들이 바로 속도전 청년 툴격대 제 7려단 3중대 혁명붉은기 2대대 전투원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투쟁을 따라가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모의 척후대입니다.』

두해 전 1월 대대 앞에 당의 구상에 따라 일찌기 될 중요 대상건설과제가 맡겨졌다. 대대로서는 아름한 과제가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둘격대원들의 기세는 충천하였다. 그만큼 대대는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막아도 면 후속으로 손색없이 해제하여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하는 집단. 속도전 청년 둘격대적으로 제일 전투력을 있는 집단으로 알려져있던 것이다.

기초 풍크리트 치기기에 이어 벽체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였다. 불리한 날씨가

속도전 청년 툴격대 제 7려단 2대대 전투원들

계속되는 데다 광범위한 사업으로 둘격대원들이 분발하였다. 전투는 낮에 이어 밤에도 계속되었다. 전투장의 여기 저기에서 쇄불이 타올랐다. 누가 선장을 했는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려운 잠자리》의 노래가 전투원들의 심금을 새차게 울리며 밤하늘에 울려퍼졌다. 그런 가운데 전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서로의 지원을 모은 학적적인 친의 고인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이런 헌신적인 투쟁을 수행할 때에는 또 어떤 향연인가.

작업량도 간단치 않았지만 온 힘으로 빠르게 완수되었었다.

김명호동무의 이야기는 전투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전투의 앞장에서 대오를 이끌어나가는 대대장인 리평일 동무를 존경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추억을 더듬었다.

청년 영웅으로 건설이 한창일 때였다. 대대는 어느 한 날리건

설파체를 막고 찬물속에서 굽작

작업을 하느라 험준한 전투를 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물이 좀처럼 줄지 않아 일자리가 나지 않았다. 모두가 알파카와 고집을 풀어버렸다. 누구인가 《동무들, 저기

를 보시오.》하고 소리쳤다.

둘격대원들이 엄 풀을 들어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장군님의 결심은 우리의 신천》이라는 글씨가 우렷이 얹겨졌다.

그 글밭에 뜻밖에도 대대장에게 점단. 속도전 청년 둘격대적으로 제일 전투력을 있는 집단으로 알려져있던 것이다.

기초 풍크리트 치기기에 이어 벽체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였다. 불리한 날씨가

이 한 나라의 《자식복》도 중요

한 것이 아닌가.

하다면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자식복》은 무엇에 의해야 마련되는 것인가.

어느때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년 둘격대에 대하여 높이 평가 하시면서 하신 가르침이 생각났다.

일부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사

매를 놓았던 둘격대원들이 분발하였다. 전투는 낮에 이어 밤에도 계속되었다. 전투장의 여기 저기에서 쇄불이 타올랐다. 누가 선장을 했는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려운 잠자리》의 노래가 전투원들의 심금을 새차게 울리며 밤하늘에 울려퍼졌다. 그런 가운데 전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서로의 지원을 모은 학적적인 친의 고인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이런 헌신적인 투쟁을 수행할 때에는 또 어떤 향연인가.

작업량도 간단치 않았지만 온 힘으로 빠르게 완수되었었다.

김명호동무의 이야기는 전투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전투의 앞장에서 대오를 이끌어나가는 대대장인 리평일 동무를 존경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추억을 더듬었다.

청년 영웅으로 건설이 한창일 때였다. 대대는 어느 한 날리건

설파체를 막고 찬물속에서 굽작

작업을 하느라 험준한 전투를 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물이 좀처럼 줄지 않아 일자리가 나지 않았다. 모두가 알파카와 고집을 풀어버렸다. 누구인가 《동무들, 저기

를 보시오.》하고 소리쳤다.

둘격대원들이 엄 풀을 들어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장군님의 결심은 우리의 신천》이라는 글씨가 우렷이 얹겨졌다.

그 글밭에 뜻밖에도 대대장에게 점단. 속도전 청년 둘격대으로 제일 전투력을 있는 집단으로 알려져있던 것이다.

기초 풍크리트 치기기에 이어 벽체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였다. 불리한 날씨가

이 한 나라의 《자식복》도 중요

한 것이 아닌가.

하다면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자식복》은 무엇에 의해야 마련되는 것인가.

어느때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년 둘격대에 대하여 높이 평가 하시면서 하신 가르침이 생각났다.

일부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사

여 높이 떠받들어 주고 싶은 삶정을

금할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원수님의 영상이 안겨왔다.

우리 당의 마음의 기동, 억척의 지지점이 되어 준 선조로 동당의 아들들로인 우리 미미은 청년들이 있어 우리 조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한 것이다.

당에 끌없이 충직한 청년대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암말로 사

사회주의 대정의 복종의 복이 아닌가.

본사로 되돌아온 나는 책상에 마주앉았다. 생기

발랄하고 친절한 청년대군

들을 훌륭히 키워준

어머니 당에 끌어온 미미은 청년들이

제목을 달았다.

전투원들이 대로 되고 생활한 재

사가 되어야 합니다.』

동등하는 절차로 비약하는

내 조국의 어미를 가나 암삼만

년 뒤지와 배짱으로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미미은 청년생들이 있다.

우리는 열미진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제 6차 전국대학생정보

신 철

회의 우회로 되고 반혁명의 하수인이 되어 할아버지 세대를

쌓아올린 럽을 헐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이

수많은 대기념비적 창조물을

조국땅 땅방포에 훌륭히 건설

하였다.

전주보석처럼 아끼고 내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성실한 피와 땀으로 사

회주의 수호전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펼친 선군조선의 청년들,

쇠는 수원℃의 고열로 물어버린

로 속에서 서민 강철로 되고

나무는 비바람을 맞으며 들판에

자리에 남아 억새에 거지거리를

뛰어온 청년들은 땅방포에 훌륭히

건설한 것이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청년들이

제일이다. 그들이

